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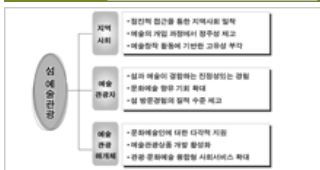
칼럼 Column



평화와 예술 그리고 섬 백령도

지난 5월 11일과 25일 일군의 예술가, 인문학자들이 백령도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 날을 시작으로 백령도는 올 여름 인천을 날씨보다..

IDI 연구 IDI Research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연구
섬 관광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섬 관광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예술관광을 주목할 필요..

도시동향 City Trend



예술의 섬, 나오시마

나오시마는 세토내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오카야마 현과 가까운 섬..

인천지표 Incheon Index



인천광역시 연안도시 및 공공예술 프로..
2011년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전체 151개소의 도서가 있으며 이중..

IDI 소식 IDI News



제5차 인천재정포럼 "지역자원을 활용..
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와..

IDI 단상 IDI Platform



IDI의 더무비 라이브 더테러 라이브 감상..
내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난..

zoom인 ZoomINcheon



북성부두, 숨겨 놓은 인천의 보물
북성부두는 숨겨놓은 인천의 보물과 같은 장소이다. 초행길의 방문자들은 갈 찾기가 쉽지 않다. 인천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창산업과..

인터뷰 Interview



활로 평화를 쏘아 올린다

아뜨리에 86호에서는 인천아뜨리플랫폼 이수영 작가를 만나 2013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관련 소개와 백령도에 머무는 동안 섬사..

평화와 예술 그리고 섬 백령도

이 승 미 _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2013년 뜨거운 여름

지난 5월 11일과 25일 일군의 예술가, 인문학자들이 백령도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 날을 시작으로 백령도는 올 여름 인천을 낄씨보다 더 뜨겁게 달구었다. '백령도'는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191.4km 떨어진 서해 최북단 섬이다. 남북을 가르는 휴전선을 훌쩍 넘어 북쪽 황해도 장산곶과 심청의 설화가 있는 인당수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서 마주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이자 두무진, 콩돌해안, 사곶해안 등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며, 담수량이 풍부해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와 중국 사이 항로 중간 기착지로 그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2014년 인천에서 개최 되는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인 물범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에는 인구 5,000명이 군인들과 조화롭게 거주하고 있다.

백령도는 언제나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슬픈 설화가 많다. 지금도 백령도는 비교적 옛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 대부분이 황해도 옛 말씨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처음엔 매우 낯설게 느껴지고, 어딘가 우리의 유년시절을 보낸 곳을 닮은 진촌읍 풍경도 그렇다. 곳곳에 군부대 망루도 긴장감 높은 뉴스의 한 권을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엽서 속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백령섬당과 중화동 교회의 종탑 그리고 천혜의 바다와 자연을 마주하는 순간, "아!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서해바다는 바닷물이 황색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서해바다는 눈이 부시도록 푸르고 깊은 파란 바다였다. 눈부신 파란 바다 건너 구비 구비 산등성이 곡선을 마주하고 도 갈 수 없는 육지이라는 생각이 들면 공연히 지천으로 피어난 해당화 꽃이 슬퍼 울컥 눈물이 날것도 같다.

백령도_525,600시간과의 인터뷰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2011년부터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후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다 남북관계가 긴장과 해빙무드가 극적으로 교차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타까움이 더욱 큰 해였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기념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 그리고 그 긴 세월을 말없이 견디고 돌처럼 굳어버린 상처를 스스로 소화해 온 백령도에 마음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백령도_525,600시간과의 인터뷰'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제1회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야기된 평화의 위협에 대한 예술가들의 근심어린 표현이었다면, 제2회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는 보이지 않으나 넘을 수 없는 바다위의 금을 없애고 열린 바다와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지난 3년간 평화미술 프로젝트는 인천지역 섬들을 답사하면서 촉발된 사건과 현상을 분석하고, 역사를 학습하고 반추하며 평화의 당위성을 예술 창작 활동으로 표현해왔다.

평화미술프로젝트가 전쟁과 남북의 정치적, 이념적 대치상황에만 주목한 것은 아니다. 내리쬰는 태양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금방이라도 다 익혀버릴 것만 같았던 여름. 미술관도 전시공간도 없는 백령도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불과 5,000의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북단 섬 백령도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자 예술과 문화를 담아내는 예술의 섬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첫발을 뗀 것이다.

평화와 예술의 섬 백령도

왜 백령도인가? 구글에도 나오지 않는 인천의 지도를 보면 백령도가 얼마나 높이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새삼 알게 된다. 이러한 예민한 상황을 예술가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다. 백령도는 오히려 해외 예술가들에게 더욱 번득이는 예술적 영감을 주는 것 같다. 그들은 인천시내에 있는 아트플랫폼보다 훨씬 작고 불편하고 고립된 백령도 레지던스를 더욱 더 선호한다. 한국말은 물론 못하는 그리고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백령도에 작가들을 보내고 걱정과 근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보면 좋은 소식들이 날아오고는 했다. 하지만 백령도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작가들은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다. 금발에 파란 눈의 영국작가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고, 어눌한 한국말을 더듬거리던 재일교포 3세 작가는 백령도 할머니들이 정성으로 돌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일거수 일투족이 장안의 화제였다. 예술가들의 작업은 지나는 주민들의 대화에 등장하고 누가 누가 그림을 더 잘 그렸는지 서슴없이 단호한 비평도 하신다. 2011년 입도했던 작가의 그림 속 주인공 어린이는 이미 청소년으로 자라있었다. 백령도레지던시를 둘러싼 내부의 변화는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백령도의 방두개짜리 집 한채가 이끌어낸 결코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이랬다. '예술이 어떻게 일상에 개입해서 평화라는 거대한 담론을 감동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비판적이고 의구심이 가득 찬 시선으로 용기포 항에 다다른 배에서부터 이미 시작했다. 전 세계 좋다는 미술관과 뮤지엄은 불만큼 본 사람들, 거장들의 작품을 아무런 감동 없이 팔짱 끼고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콩돌해안에서 콩알같은 자갈과 바닷물이 몸을 섞는 '사각 사각' 하는 소리에 눈을 감아버렸고 바다와 마주본 하늘아래에서 무장해제 되어버렸다. 석양을 등에 지고 사곶해안을 맨발로 걸으며 도시에 절어버린 숨을 토해냈다. 어리굴 해안에 파도에 무너져버린 어리버리하게 가련한 작가의 '1차 저지선'을 보고 오히려 큰 충격을 받았다. 심청각에서 인당수와 장산곶을 보고도 오히려 키작은 해당화에 애정을 쏟고 해무에 갇힌 길과 나무와 현금인출기에 새삼 감동한다.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까나리 클럽을 만들어 스스로 가입했다.

백령도는 도시와 스마트한 예술에 지친 예술집단에게 말라버린 예술의 열정을 다시 샘솟게 하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달고 시원한 창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랬다. 백령도에는 이미 26개의 크고 작은 전시(?)공간이 있다. 결코 일상적이어서는 안되는 그 공간에 예술이 개입해 일상적이어도 관람을 이유를 만들었고, 철조망에 갇힌 망루와 바다를 예술적으로 개입해보고자 하는 열정을 품게 되었노라고...

더 많은 예술가들이 백령도에서 사색하고 걷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찍고 노래하는 예술의 섬 백령도를 꿈꾸어본다. 그것이 과연 평화가 아닌가?

오랫동안 잊혀진 채 비밀스럽게 아름다운 설화의 섬 백령도...

활로 평화를 쏘아 올린다



인천아트플랫폼
작가 이 수 영

아프리에 86호에서는 인천아트플랫폼 이수영 작가를 만나 2013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관련 소개와 백령도에 머무는 동안 섬사람들과의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작가의 주요 작품과 퍼포먼스, 예술로 이어진 작업들과 그녀의 최종 목표를 들어보았다.

Q. 요즘 이수영 작가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A : 조금 특이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의 관심사는 활쏘기입니다. 여름에 퍼포먼스용으로 활쏘기가 필요해서 국궁장에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완전히 활쏘기에 매료되다 못해 중독돼서 전국대회까지 출전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한발도 못 맞힌 채 끝났지만 느낀점이 많습니다. 이 정도의 중독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상 따로 예술 따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을 사건화 하는 일에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처음에 활을 통해 군사지역인 백령도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군대에서 최신형 무기가 아닌 옛날 무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는 생각을 했고, 활 끝에 정이 넘치는 초코과자를 매달거나 최중병기 활의 느낌 보다 사람의 큐피트를 연상시키는 화살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귀신 잡는 해병, 최중병기 활, 이런 것들이 묘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소복을 입고 공연을 했습니다. 활을 쏘긴 쏘되 단순한 무기로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고, 활은 어쩐지 지상의 여인이 아니어야 왠지 주술의 힘이 더 실릴 것 같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Q. 백령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 <최중병기 활> 2013년 5월 25일-27일: 백령도에 갔습니다.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 가까이에서 '효녀심청'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상으로 서 있는 심청은 치마를 들어 울리며 뒤를 돌아봅니다. 바다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죽음의 공포로 치마를 들어 올려 얼굴을 가리려 했나봅니다. 심청이가 등지고 서서 돌아보는 바다 건너 북한이 지척입니다. 심청동상 옆에는 전시용 해병대 탱크 하나가 북한을 향해 포구를 곧추세우고 서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탱크가 맞서고 있습니다. 효성과 구국의 신념, 죽음의 공포와 전쟁 모두는 바다를 향합니다. 바닷가 두 조형물이 만나는 풍경에 제 마음이 아득하고 먹먹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긴 머리 풀어헤쳐 하얀 소복 입고 천사 날개를 달고 두 조형물 옆에서 활을 쏘았습니다. 천사이든 귀신이든 그 여인은 이승의 것은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승과 갈라선 저승의 여인이 바닷가에서 쏘는 활은 해병대 탱크와 탱크가 향하고 있는 그곳의 증오를 이길 수 있을런지요. 죽음을 앞둔 어린 소녀의 공포를 이길 수 있을런지요. 벼랑처럼 긴장하고 있는 죽음, 공포, 전쟁을 미술작가인 저는 어찌할 수 있을런지요.

- <백령도 해병대와 백령성당 유치원 어린이> 6월 29 - 8월 2일: 1. 백령도에 알맞은 주제로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중 바다이야기를 백령성당 성모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들려줍니다. 2. 어린이들은 물고기로 변신해서 유치원 바닥에서 헤엄치며 놀입니다. 3. 물고기로 변신한 어린이들이 바다 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3.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미술작가가 유치원 외벽에 크게 그립니다. 4. 해병대 아저씨들이 알록달록 색깔 타일을 쪼개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모자이크 타일 벽화를 완성합니다. : 미술작가는 어린이와 해병대 군인들을 연결시키는 역할만 하는데, 군인아저씨들은 백령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귀신잡는 해병대가 무시 무시하 저트호로운 주다하고 뭐가 재미는 따로 지을 하게 되는 거입니다. 서에 어떤 호저을 나기게 하는

두시간 전후로만 걸 동안에 걸기 계셨던 거든 것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이런 걸을 같이 계신 것이지요. 20대 초반 푸르른 시절 2년을 백령도에서 보내게 될 이 청년들이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섬에 군대훈련이 아닌 다른 흔적을 섬에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섬 주민들과의 교감은 어땠나요? 재밌는 일화도 많았을거 같은데, 좀 들려주세요.

A : 저는 어릴적부터 이상하게 수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의 백년된 성당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백령도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으니까 미사를 드릴 때 보면 조그맣고 허름하며 겸손한 시골 성당에 신자의 99%인 할머니들이 거의 모두 꽃무늬 상의를 입으시고, 하얀 미사포를 쓰신 모습이 꽃밭 같았고, 살짝 말쑥을 더듬는 신부님까지 묘하게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 시골 성당의 풍경과 소리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섬에 있는 동안에 성당 안에서 장기자랑이 열렸는데 그날은 성 야고보축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성 야고보에게 바쳐진 성당답게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서 고 공옥진여사 못지 않은 병신 춤을 선보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죠. 그리고, 일명 전자동음악기 할머니도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노래!" 주문만 하면 바로 바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죠.

제일 인상 깊었던 작업은 아이들과 벽화를 그리고, 해병대를 동원해서 타일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었는데 그중에서도 생각하는 하사님 한분이 계십니다. 단 하루도 안빠지고 나와서 작업을 하시면서 그 일을 재미있어 하고, 보람 있어 한 분이십니다. 9명의 해병대원들이 3주간 일을 해주었는데 자기 일처럼 재밌게 해줘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지역을 부드럽게 하고,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국내의 예술가들이 들어와 협동해서 작업을 하니까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 되고,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되는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Q. 섬을 테마로 한 인천아트플랫폼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 작년에 인천아트플랫폼 답사프로그램에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가까이서 월미도 강화 교동도, 멀게는 연평도, 백령도까지... 거기다 전문가 선생님들과 동행을 한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먼곳에 대한 그리움이나 동경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저 역시 섬 하면 환상, 매력, 낯선 곳...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섬이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섬 출신의 예술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장석남, 이세기, 기형도 시인 등이 섬 출신인데, 그 공간이 집중을 하게 도와주고, 섬과 예술의 연관성이 공간적으로도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Q. 이수영 작가의 주요 작품과 퍼포먼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

<연평도 해병대와 물귀신> _ 퍼포먼스_2012

포격 사건이 있었던 연평도에서 저는 물귀신이 되어 열 맞춰 뛰어가는 해병대 뒤를 따라 뛰었고, 바닷가, 대피소, 선착장, 사격훈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군인들과 관광객, 주민들이 귀신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버랑처럼 긴장하고 있는 그 바다와 섬에서 함께 즐거웠다는 그 엄중한 경험은 소중합니다. 총으로 없앨 수 없는 증오와 공포를 미술이 할 수 있다면, 그 주술은 귀신의 소중한 업일 것입니다.





〈풍장(風葬)〉 _ 퍼포먼스 _ 2011

몽골 남고비 사막 초원에서 바람 속에 누워있는 짐승들의 자유로운 사체를 만났습니다. 함께 자란 풀과 바람 속으로 다시 돌아간 그 영(靈)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래했습니다.



〈사주(四柱)〉 _ 퍼포먼스 _ 2010

광고를 내고 바르셀로나 아시아센터에서 시민들의 사주(四柱)를 보았습니다. 사는 일은 다 같아서 사람들은 다급한 욕망과 걱정들이 많았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줬습니다.



〈서쪽으로 다시 오 백리를 가면〉 _ 퍼포먼스 _ 2010

서울 가리봉동 조선족 이주자 식당에서 양 꼬치구이를 한 잎 베먹었을 때 바람 찬 복간도로 떠났던, 그리고 다시 노동시장을 찾아 남한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의 이민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더 나아가 타클라마칸 사막의 황색 모래 바람과 '저 먼 곳'을 상상했습니다. 술단지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저는 중국 위구르자치구 초원과 사막을 건넜습니다.





Q. 섬에서 더 해보고 싶은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대피소에서의 전시회가 의미 있었는데, 대피소에서 무언가 했다는 것 자체가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피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고 있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올해 안에 아직 못 만난 만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몸이 아파서 인천을 나갔다는 소리도 있는데, 만나게 된다면 섬사람들의 애환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Q. 이수영 작가의 최종 꿈과 목표는 무엇인지요.

A : 물론 청년정신을 잃지 않는 신기하고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궁, 즉 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활과 샤머니즘을 결합한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것인데, 등에 활을 매고 허리에 화살을 차고 말을 타고 몽골-시베리아-동유럽-영국까지 여행을 하며 명궁들을 만나 같이 활을 쏘고, 궁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활은 땅을 읽고 바람을 읽어 활을 매는 도술인데, 나라가 다르면 땅이 다르고 바람이 다르게 불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풍수 1급 자격증을 따야 하고, 명리학을 배우고 국궁 유단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리학을 시작한 것은 3년쯤 되고, 풍수 공부는 6개월이 됐습니다. 궁도는 지금 수련 중입니다. 3년 후 이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것이 지금의 꿈입니다. 긴 여행에서 돌아오면 땅을 읽어 달리고, 바람을 읽어 활을 매기며, 판도라 상자를 열어 욕망을 해방시키는 큐피트 명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대담:김창수(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 기록·사진:장순지(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

북성부두, 숨겨 놓은 인천의 보물

김 창 수 _ 도시인문학센터장

북성부두는 숨겨놓은 인천의 보물과 같은 장소이다. 초행길의 방문자들은 길찾기가 쉽지 않다. 인천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창산업과 대한제분 사이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 한다. 밤늦게는 불이 꺼져 길 찾기가 더 어렵다. 인천의 도심에 남아 있는 옛 포구는 화수부두, 만석부두이다. 이들 부두는 모두 공장이나 아파트단지로 둘러쌓여 있어 인근주민들이나 관심있는 이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 북성부두로 가는 미로를 찾는 힌트는 인천수협연안어촌계에서 붙여놓은 북성부두선착장 입구의 작은 간판과 골목입구에 놓여있는 함지박에서 고물거리고 있는 바지락과 어패류이다.



북성포구 선착장 입구

이 도심부두는 오랫동안 서해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에겐 중요한 시설이었다. 1980년대 까지만해도 수도권에서 이름난 포구이자 어시장이었다. 1980년대 포구 주변의 갯벌이 공장부지와 고철야적장으로 매립되면서 포구는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 도심포구에서 보이는 대성목재공장 주변은 사진작가들이 즐겨찾는 장소가 되고 있다. 갯벌과 해수면 위에 펼쳐진 공장지대의 모습은 좀 상투적이긴하지만 자연과 문명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 산업화 시대의 경관을 표현하는 소재로 뽐직하다.

입구를 들어서면 두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의 비좁고 철판과 시멘트벽으로 둘러쳐 있는 어두컴컴한 골목이 나타난다. 이 골목을 지나면 바다와 포구가 나올까 의심스럽다. 한낮에 지나가도 조금은 으스스한 골목을 지나면 선착장 축대가 나온다. 축대를 따라 늘어선 회집가게들은 공간이 없어서 까치집처럼 매달려 있다. 10여호의 횡집을 지나면 포구와 선착장의 모습이 나타난다. 필자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썰물 때라서 갯벌에 얹혀 있는 어선 몇 척과 축대 난간에서 줄고 있는 갈매기들만 풍경화의 소품처럼 포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설날때의 북성포구

한 시간쯤 지났을까, 갯골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들롱이나 손수레를 든 주민들도 하나 둘 포구로 모여들어 갯골 수로 쪽을 바라보며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10여척의 어선들이 차례대로 포구로 들어와 닻을 내리면 조용하던 포구에 시장이 열린다. 뱃전에서 새우와 꽃게를 놓고 흥정이 벌어지는가 하면 횃집들도 방문객으로 일손이 바빠진다.



북성포구에 열린 어시장

북성포구는 외지인들이 찾기 어려운데다 주변이 워낙 어수선해서 당장은 자랑거리로 내놓기는 어렵다. 오히려 외지인이 많이 찾아올까 두려워 입구도 포구도 무신경하게 내버려 둔 장소이다. 이 포구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화수부두와 함께 도심 포구로 조성한다면 새로운 매력물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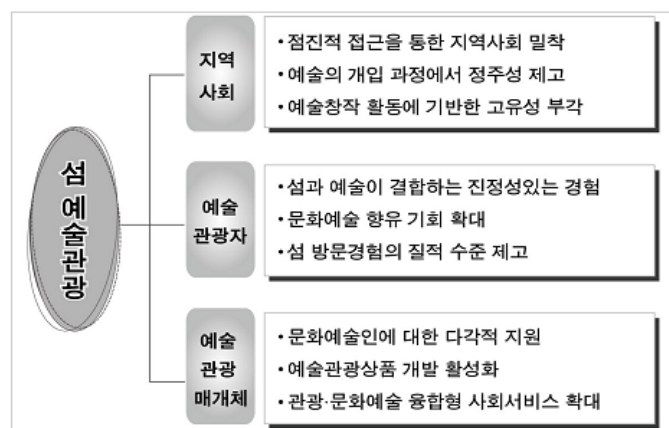
심진범 _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I. 연구목적 및 의의

- 섬 관광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섬 관광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예술관광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육지와 차별적인 자연생태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예술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관광매력을 창출하고 차별적인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임.
- 개발가능지 부족, 외부 자본투입 여건 취약과 같은 섬 내부 조건은 물론 문화소비 시장 성장, 콘텐츠 중심의 정책사업 증가,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같은 외부 정책환경은 예술에 기반한 섬 관광정책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시사하기도 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연구는 '인천시 섬 예술관광'이라는 정책개념 하에 세부 정책 대안을 체계화하는 정책연구이자 섬이라는 공간적 영역에 기초하여 예술관광 논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개척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II. 섬 예술관광의 개념과 기본시각

- 섬 예술관광은 '섬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 활동의 결과물과 창작활동, 이에 내재된 감성적 가치를 핵심 매력이자 경험의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음. 예술관광의 논의의 영역을 섬이라는 지역적 경계로 규정한 것으로 섬 지역의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 보다는 섬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시대의 문화예술 활동이 관광경험의 대상이 됨.
- 섬 예술관광은 본질적으로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정합적 관계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섬 관광의 질적 성장과 가치 창조를 통해 예술관광의 특징이 잘 발휘되는 구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섬 예술관광의 기본 구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섬 예술관광은 ①섬이라는 지역사회, ②예술관광자, ③섬 예술관광 매개체 차원에서 기본시각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이는 예술관광의 공급처(객체)와 수요자(주체),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매개체) 예술관광의 기본적인 구조를 의미함.



섬 예술관광의 구조와 기본시각

III. 인천시 섬 예술관광 정책개입 방향

- 인천시의 섬 예술관광 정책개입 방향은 섬 예술관광의 개념 속성이나 기본구조, 섬 예술관광과 관련되는 인천시의 관련 정책환경 및 여건, 선행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실천과정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인천시 섬 예술관광 정책개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개입함

① 유관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토대로 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 섬 예술관광이라는 통합적인 정책 구조 하에 관광개발, 공공예술 프로젝트, 관광마케팅 등의 유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그리고,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정책목표 하에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함.

② 섬 다음의 가치 재발견과 섬 매력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과정으로 접근

- 예술의 개입은 예술을 매개로 섬 고유의 차별성을 찾아가고 진정성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도록 함. 따라서, 섬의 고유한 특성과 조건에 대한 탐색과 진단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관광 스펙트럼을 다각화해 나가도록 함.

③ 섬 지역의 정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섬 관광정책 차원에서 접근

- 섬 관광활성화라는 제한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성 회복 등 섬 지역 정주성 제고라는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도록 함. 창의성에 기반한 섬 내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섬 관광소프트 중심의 적절한 개발, 지역주민 참여와 경제적 편익 창출 등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섬 관광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함.

④ 유연한 지원구조를 통한 민간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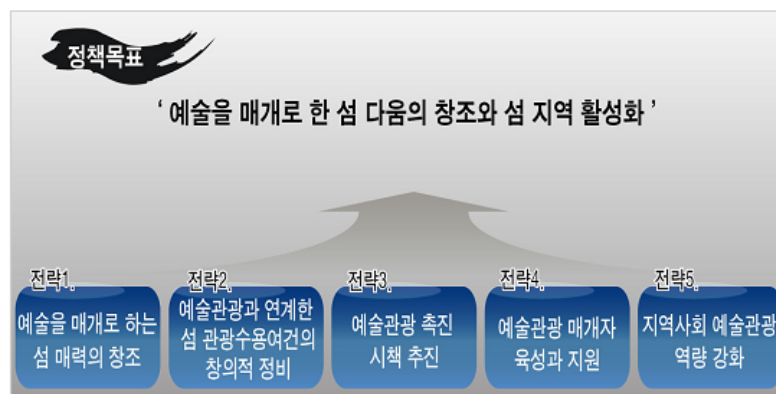
- 행정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지양하고, 예술가, 문화활동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과 학생 등이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를 자극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구조를 갖추도록 함.

⑤ 선택과 집중, 거점-연계방식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 섬 관광의 기초조건과 예술관광의 개입 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도록 함. 예술관광 매력과 유인력이 탁월한 거점을 육성하고 거점에 의한 수요 창출과 주변 섬이 연계되는 방식을 지향하도록 함.

IV. 인천시 섬 예술관광 정책목표 및 전략

- 인천시 섬 예술관광 정책구조는 정책목표와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음. 연구에서는 인천시 섬 예술관광 정책목표를 '예술을 매개로 한 섬 다음의 창조와 섬 지역 활성화'로 제안함.
- 일반적으로 관광정책의 목적은 방문자 만족, 경제활동과 사업성과의 개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지역사회의 통합 등을 지향함. 섬 예술관광은 섬 매력의 창조를 통한 섬 방문경험의 질 개선, 예술관광객 증대와 소비지출 확대에 따른 섬 지역 활성화, 예술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가치의 재발견, 예술을 매개로 한 섬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관광정책의 목적과 정합적인 관계에서 설명이 가능함.
- 제안한 섬 예술관광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수단으로서의 전략은 섬 예술관광의 기본구조 및 정책개입 방향에 기초하여 ①예술을 매개로 하는 섬 매력의 창조, ②예술관광과 연계한 섬 관광수용여건의 창의적 정비, ③예술관광 촉진시책 추진, ④예술관광 매개자 육성과 지원, ⑤지역사회 예술관광 역량 강화 등 5개 전략으로 제안함.
- 개별 전략은 다시 하위 수단이 되는 세부과제를 통해 실천과정을 거치게 되며, 경험적인 성과의 창출과 학습을 통해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자기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됨.



V. 실험 프로젝트 추진 및 정책 집행체계 구축

- 실험 프로젝트는 제안한 전략별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인천시 섬 예술관광의 경험적 시행모델 마련과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본 사업의 체계적 확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기존에 분절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관성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업에 변화를 시도하여 관광과 예술이 융합하는 통합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모델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실험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 지역주민 참여, 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시행 가능성, 가시적 성과, 대내외 정책 인지도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

방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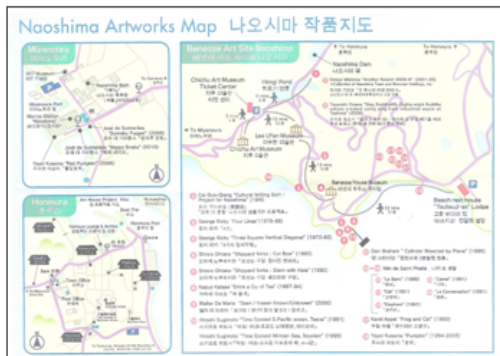
- 제안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 기획을 수행하는 가칭, 인천시 섬 예술관광 추진단 구성, 제안된 정책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실행방안 수준으로 구체화시킨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광진흥·문화예술·도서개발 등의 자원과 인천문화재단,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자원의 통합적 활용, 조례를 통한 섬 예술관광의 안정적 집행기반 구축 등이 필요함.

예술의 섬, 나오시마

전 승 용 _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전문연구원

나오시마¹⁾는 세토내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오카야마 현과 카가와 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둘레는 16km, 인구는 약 3,300명이다. 해운업, 어업, 제염업 등이 주요 산업으로 한때 구리 채련소가 있었다.

나오시마의 변화는 베네세 그룹의 후쿠타케 소이치로 회장이 그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아이들을 위한 캠프장(나오시마 국제캠프장, 1989년)을 개장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산업폐기물로 오염되었던 섬을 현대미술과 접목시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992년 완성된 베네세하우스 뮤지엄(Benesse House Museum)은 미술관과 호텔을 일체화한 종합 공간이다. 안도 타다오는 이곳에서 엔디워홀, 브루스 나우먼, 조나단 브롭스키 등 유명한 현대미술작가의 작품과 자연을 동시에 감상 할 수 있도록 이곳을 설계하였다. 이후 1997년 나오시마 혼무라 지구를 중심으로 오래된 마을의 민가를 개조해 현대미술 작품으로 바꾸는 이에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기원(棋院), 신사, 치과의원 등 일곱 곳의 빈집을 예술가들의 상상력으로 되살려낸 이에프로젝트는 '있는 것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신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섬 주민들도 현대미술과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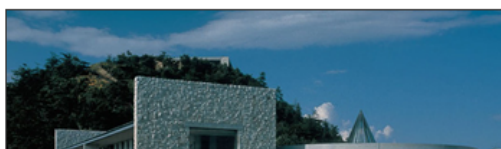
고오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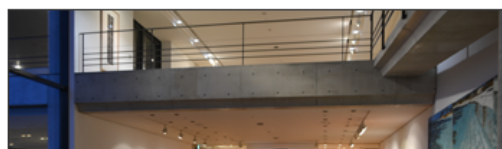
하이샤



베네세 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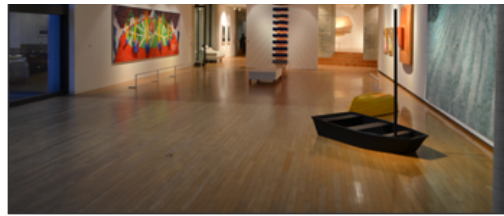


베네세 뮤지엄 내부





출처: www.benesse-artsite.jp



2004년 개관한 지추미술관은 미술관의 대부분이 땅속에 묻혀 있다. 안도 타다오는 지추미술관을 프랑스 인상파의 거장 클로드 모네, 미국 대지미술 작가인 월터 드 마리아, 미니멀리즘의 사제 혹은 빛의 작가로 불리는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였다. 특히 주변 환경과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지추미술관은 나옴시마 프로젝트의 근본철학을 담고 있다. 2010년에 개관한 이우환 미술관 역시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것으로 자연과 건축, 예술이 일체를 이루는 미술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추미술관



출처: www.benesse-artsite.jp

이우환 미술관 입구



2009년에는 이에프로젝트의 하나로 나옴시마 목욕탕 '아이러브유(I♥湯)'²⁾를 개관하여 현대미술을 전신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공간을 나옴시마 관광협회에 위탁해 현지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후쿠타케 소이치로는 아트 프로젝트를 나옴시마에서 끝내지 않고 주변 다른 섬까지 진행했다. 2008년부터는 버려졌던 제련소를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이누지마 프로젝트를, 2010년에는 테시마미술관을 통해 예술을 통한 자연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세토우치 국제미술제를 열어 사람에 의해 버려지고 황폐해진 섬이 다시 사람의 힘, 예술의 힘으로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89년부터 나옴시마에서 시작된 아트 프로젝트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이를 통해 나옴시마는 버려진 섬에서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되었고, 이제 이곳을 찾는 관광객만 한해 수십만 명이 넘는 명소가 되었다.

1) '나옴시마'의 지명 유래는 '호겐의 난(헤이안 시대, 1156년)'에서 패배한 스토쿠 상황이 유배 당시 섬 주민들의 솔직함에 감동하여 '나옴시마'라 명명했다고 전해진다.

2) 탕(湯)은 일본어로 '유'로 읽힘. I♥湯는 '목욕이 좋아'라는 뜻이 됨.

연구원소식 IDI News

Webzine Vol.86

제5차 인천재정포럼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 강구



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주최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주제로 제5차 인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재영 인천대 교수의 사회로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항만 및 배후시설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발제하고,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원인자 부담으로서 벌크 화물세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천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컨테이너口벌크 화물세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지방세 확보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인천시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어 조기현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일본 지방재정학회의 모리 히로유키(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 우에무라 토시유키(칸세이가쿠인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현재 일본 지자체가 겪는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인천지역 공약이행 로드맵
 제1차 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인천 서구문화회관(2층 소공연장)에서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천지역 공약이행 로드맵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유병윤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은 「박근혜정부의 인천지역 공약 이행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국정과제 및 인천지역 7대 공약에 따른 인천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창조경제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주제로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균형성장, 외국 투자유치 확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이 포함되었으며, 인천지역 7대 공약으로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등의 소개와 국가차원의 지원 건의 및 정책 방향 등이 중점 사항이었다.

이어서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의 주제로 진행된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는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종길(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 민경석(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장), 배준영(인천항만물류협회장), 윤석윤(인천대학교 교수), 전찬기(인천아카데미 원장), 정의성(인천장애인평생교육통합진흥회장), 조명조(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이 참여했으며, 인천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분야별 로드맵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교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동근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 250여명의 관계 공무원 및 인천시민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항과 인천지역 공약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용현중학교 재학생 초청 연구원 탐방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2013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9월 3일, 용현중학교 1학년 학생 30명 내외를 초청해 원내 대강당에서 "연구원의 역할 및 연구활동"을 주제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연구원 임직원들이 인천광역시 시청현황, 연구원 역할 및 연구활동, 진로 및 진학상담, 시설견학 및 현장체험을 등의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강평회를 갖는 등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와 지역연구 및 시정 개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9월 2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나윤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교수를 초청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 연안도서 및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현황

심진범 _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1. 인천광역시 연안도서 현황

○ 2011년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전체 151개소의 도서가 있으며, 이중 유인도는 39개소임. 도서지역의 전체 면적은 292.14㎢로 13,238세대에 26,44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연안도서 현황

구분	도서(개)			면적(km ²)	세대	인구(명)
	합계	유인도	무인도			
2009년	145	36	109	404.11	11,976	25,074
2010년	150	39	111	119.95	12,675	25,811
2011년	151	39	112	292.14	13,238	26,440
중 구	15	4	11	11.52	470	889
동 구	1	-	1	0.07	-	-
남 구	-	-	-	-	-	-
연수구	-	-	-	-	-	-
남동구	1	-	1	1.70	-	-
부평구	-	-	-	-	-	-
계양구	-	-	-	-	-	-
서 구	8	1	7	0.48	24	36
강화군	26	9	17	106.47	2,908	6,030
옹진군	100	25	75	171.90	9,836	19,485

출처 :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2012)

2. 연안도서 주요 항로별 여객현황

○ 인천광역시 연안도서 주요 항로별 여객은 2012년 기준 1,600천명 수준으로 항로별로는 삼목-장봉 항로, 인천-백령 항로, 인천-덕적 항로가 상대적으로 여객수송이 발달해있음.

인천광역시 연안도서 주요 항로별 여객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 항로	대부-이작	64,293	69,008	66,973	72,328	73,867
	대부-덕적	76,558	90,678	94,106	97,219	101,312
	삼목-장봉	253,587	244,320	332,767	331,827	417,216
	여의-덕적	-	-	-	-	7,491
	주문-외포	80,985	80,480	75,731	81,049	85,294
	인천-덕적	257,199	304,629	272,711	302,205	299,010
	인천-연평	63,329	73,116	74,302	107,997	111,401
	인천-백령	285,177	272,897	231,262	284,741	340,783
	인천-이작	104,593	109,724	112,086	123,407	117,824

	하리-서검	20,847	22,120	16,672	18,190	16,792
보조	진리-올도	15,276	18,131	17,354	19,641	29,541
합계		1,221,844	1,285,103	1,293,964	1,438,604	1,600,531

출처 : 한국해운조합

3. 인천광역시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현황

- 인천광역시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인천문화재단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사업(시도기획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임. 사업목적은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과 문화 역량 강화, 장소적 특징과 연계한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조, 문화예술을 통한 시각환경 개선으로 도서 지역 관광효과 제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및 향유 기회 확대 등임.
- 2009년 이후 2012년 까지 전체 10개의 섬에서 프로젝트가 수행됨. 2009년~2011년 사업은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형태로 독립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이후는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의 세부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현황

구 분	대상지	프로젝트명
2009년	자월도	섬, 달빛꿈을 머금다
	덕적도	섬 things-섬, 그곳에 있는것들
	신도	바람이 분다, 뭇대를 올리자
2010년	대이작도	꽃, 꿈, 섬 대이작도
2011년	장봉도	장봉1리 문화예술마을형성 프로젝트
	무의도	출추는 섬 무의도
	주문도	섬마을 꽃들의 발자국
	소무의도	작은무의도 그림수필 '섬길을 존중하다'
2012년	세어도	세어도, 우물 안 가득
	아차도	아차도, 섬의노래
	장봉도	제2차 장봉1리 문화예술 마을 만들기
	소무의도	작은무의도 그림수필 '생각하는 섬'

출처 :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주요 섬 관광개발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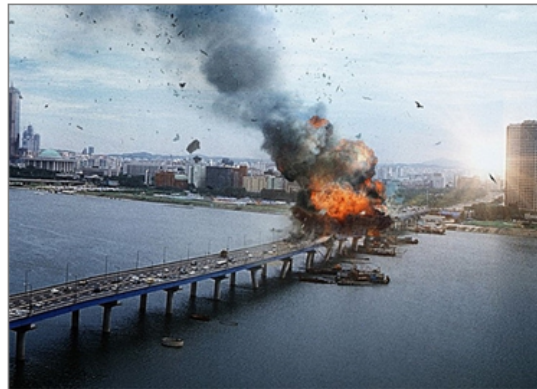
IDI의 더무비 라이브 (-더테러 라이브 감상평)

윤 세 정 _ 연구기획팀

내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난 마치 태초부터 문화인이었던 것 마냥 문화생활에 빠져들었다. 그 중에서도 시야가 마비될 것 같은 캄캄함과 고막이 터질 듯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영화 관람이 좋았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난 후부터 난 TV에서 해주는 개봉한지 일년된 신작(?)들에 열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연구원을 다니는 즐거움 하나가 생겼다. 바로 'IDI영화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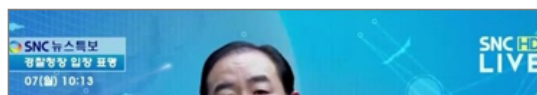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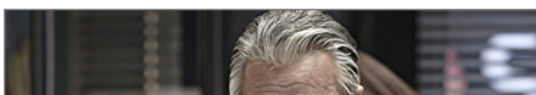
영화동호회는 한 달에 한번, 취향이 맞는 직장동료들과 같이 영화를 보며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잔혹한 폭평을 늘어놓는 친목도모 복지프로그램이다. 난 영화동호회가 시행된다는 알리를 받으면 설렌다. 거짓말 조금 보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고 싶어서 누구보다 오전에 맹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인생의 단비같은 의미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수많은 영화를 관람했지만, 최근 가장 인상깊게 본 영화는 '더테러 라이브다. 주인공 하정우는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지 대본의 글자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중저음으로 라디오진행을 하며 영화는 시작된다. 곧이어 아무런 의구심과 긴장감을 느낄 새 없이 테러범이 등장한다. 팝콘과 음료를 나눠먹고 옆에 앉은 동료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도 영화동호회의 묘미인데, 이 영화는 도무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아주 잘나가던 국민앵커 하정우는 비리에 연루되어 라디오 DJ로 밀려나게 된다. 어느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화연결을 하던 중 마포대교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받는다. 이를 장난으로 여긴 하정우는 '니마음대로 하세요~이xxx야~' 말해버린다. 그런데 정말 마포대교가 폭파된다. 대교가 폭파된 후부터 테러범의 전화벨이 다시 울리기까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정우는 대단한 평정심을 발휘하며 테러범과의 독점인터뷰를 통해 보도국 앵커로 다시 복귀하고자 테러범과의 통화를 생중계하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테러범은 어눌한 말투와는 달리 철저히 계산된 테러시나리오로 하정우의 귀에 폭탄을 설치해 그를 곤경에 빠뜨린다. 일용직노동자인 테러범의 요구는 건설작업 중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처음엔 테러범의 요구가 뭐 저래? 했는데, 당시 건설현장에서 죽은 노동자들은 충분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세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회의준비로 구조인력이 없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테러를 벌이는 테러범이나 테러범이 저주하는 권력자들의 무관심이나 횡포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었다.

이런 생각도 잠시 곧바로 테러상황에 대처하는 이들의 행동에 몰입이 치밀게 된다. 폭파된 마포대교위에 고립된 시민들을 뒤로한 채 시청률에만 신경 쓰는 방송국 간부들과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권력자들이 역겹다.





결국 테러범과의 전화생중계를 통해 목표시청률을 확보한 방송국은 임무완수했다는 듯 도취되어 사라지고, 하정우는 언론 물타기를 하려는 청와대실장에 의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망연자실한 하정우의 눈앞에 테러범이 나타는데, 테러범은 죽은 건설노동자의 아들이었다. 이들이 몸싸움을 벌이다 테러범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하정우는 결국 도움의 손을 내밀고, 화해가 이루어지나 싶었을 때 무관심했던 권력자들에 의해 테러범은 사살되고 하정우는 스스로 테러범이 남기고간 마지막 폭탄버튼을 누른다.

처음부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에 관심을 갖고 배려했다면 이런 씁쓸한 결과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는 곧 현실을 반영한다던데, 이런 현실이 딱하고 안쓰럽다.

가진 자들의 오만과 이기심, 잘못된 편견에 대해 돌직구를 던지는 이야기 '더테러 라이브'.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긴장과 추리를 통해 뇌가 말랑해지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오만가지 감정들로 심장은 쫄깃해지고 가슴은 약간 시린. 그런 여운이 남는 영화였다.

아무튼 연구원 영화동호회의 더무비 라이브가 계속되길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벌써부터 이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매장 광고가 눈에 띈다.

'더세일 라이브'. '더테러 라이브'보다는 확실히 더 유혹적이군..창고대방출급 세일인가보다. 한번 들어가 봐야 겠다.

